

‘돈만 버는 수입車’ 옛말… BMW 벤츠 사회공헌 ‘고속질주’

BMW

누적 기부액만 약 300억 달해

메르세데스-벤츠

안전 교육·미래 엔지니어 지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년간 사회공헌 100억 투자 발표

바야흐로 수입차 전성시대다. 주요 브랜드는 판매량뿐 아니라 매출액까지도 국산차를 넘어서졌다.

이에 따라 수입차 업계도 국내 사회를 위한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거침없는 투자는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가장 눈에 띄는 회사는 BMW그룹코리아다. BMW와 MINI(미니), 룰스로 이스를 판매한다. 지난해 5만4963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시장 22.3%를 점유해 2위를 기록했다.

BMW는 외국 회사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만 약 300억원에 달한다. 2017년 영업이익(105억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2018년을 기준으로 기부금으로만 13억 2986만원을 냈다.

공익재단 ‘BMW코리아미래재단’이 큰 역할을 했다. 미래재단은 2011년 처음 설립된 수입차 업계에서는 여전히 유



지난해 개최된 ‘제3회 기브앤레이스’/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BMW 그룹 코리아 RDC 항공 사진.

일한 공익재단이다. 고객이 3만원을 기부하면 그룹사와 BMW코리아파이낸셜 서비스, 딜러사가 각각 3만원을 추가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한다.

2018년 기준 연차보고를 보면, 미래 재단 수입은 이자를 빼고 약 24억원이다. BMW와 파이낸셜만 12억원을 기부했다는 얘기다. 같은 해 BMW그룹코리아가 영업손실만 4774억원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투자인 셈이다. 누적 수익도 약 225억원으로, BMW그룹코리아가 9년여간 들인 돈만 100억원을 넘는다.

미래재단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와 ‘드라이빙 센터 주니어 캠퍼스’, ‘키즈 드라이빙 스쿨’ 등이다. ‘영 엔지니어 드림 프로젝트’로 전문 기술자 양성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소에

도 기여한다는 포부다.

단순 기부만이 아니다. BMW의 사회 공헌은 전폭적인 투자에서 더 두각을 나타낸다. 2014년 770억원을 투자해 만든 영종도 드라이빙센터가 대표적이 다. BMW그룹 차원에서도 전세계에서 세번째다.

2017년 경기 안성에 지은 부품물류 센터(RDC)에는 무려 1300억원을 들였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해 국내뿐 아니라 아태지역 물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15년 세계에서 5번째로 지었던 연구개발(R&D) 센터도 올 해 200억원을 들여 더 확장한다. BMW 본사도 딜러사 바바리안모터스가 조성한 인천 송도 컴플렉스에 500만달러(약 60억원)을 투자했다.

국내 경제와도 깊은 교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산 부품을

15억유로(약 1조9000억원) 가량 수입 했으며, 올해에는 20억유로(약 2조 5000억원)로 비중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 창출 효과도 누적 1만5000명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수입승용차 시장 점유율 31.92%로 확고한 1위를 지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도 최근 들어 사회 공헌 활동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2014년 설립한 사회공헌위원회를 주축으로 활동을 빠르게 확대하는 중이다. 지난해 기부금만 26억7327만원을 냈다.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기브앤레이스’다. 2017년 처음 시작한 기부 행사로, 4회에 걸쳐 21억1702만원을 모아 아이들과 미래재단 등에 전달했다. 기브 앤바이크도 2회째 진행했으며, 기브앤컬처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벤츠는 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

고 있다. ‘모바일 키즈’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모바일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미래 엔지니어 지원을 이어왔다.

아울러 벤츠코리아는 딜러트럭코리아와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딜러사 등과 함께 ‘안심학교 담벼락’과 연탄배달, 김장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스타트업 지원도 시작했다. 2016년 본사에서 진행해온 ‘스타트업 아우토비’를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도 시행한 것.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지난해부터 3년간 사회공헌에 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소비자들에 더 가까이 다가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지난해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와 벤틀리 등으로 업계 3위인 점유율 8.47%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2018년 기준 한국토요타가 8억1074만원, 한국닛산이 3억원을 기부금으로 내놓는 등 수입차 업계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수입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업계도 단순한 판매 거점이 아닌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분위기”라며 “앞으로도 수입차 업계 사회공헌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과기정통부, 엔지니어링 2월 수상자 선정

장관상·상금 700만원 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0년 2월 수상자로 대우조선해양 이철원 책임연구원과 서진에너지 박성균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원을 수여한다.

대기업 수상자인 대우조선해양 이철원 책임연구원은 방산 분야 소음기술 국산화를 통해 국내 최초로 잠수함 해외 수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



이철원 대우조선해양 책임연구원
박성균 서진에너지 연구소장

자로 선정됐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서진에너지의 박성균 연구소장은 막결합형 하폐수 생물학적 처리기술(EMS)을 개발·상용화해 우리나라 분리막 수처리 환경분야 성장을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채윤정 AI전문기자

병원 동행, 클릭 한번으로 간단하게 예약

위드메이트 ‘병원동행플랫폼’ 출시 직원들 스스로 예약 검토·매칭

위드메이트는 병원 동행이 필요한 수요자와 전문 동행인을 연결하는 병원 동행 플랫폼 ‘위드메이트’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위드메이트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응급 의료 동행 서비스를 국내 환경에 맞춰 ‘웹-앱(Web-App)’ 형태로 옮겨온 매칭 플랫폼이다.

위드메이트 플랫폼에서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간편하게 매칭될 수 있다. 서비스 수요자가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을 하고, 전문 동행인이 접수된 신청을 검토한 후 매칭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이 완료된다. 회사가 모



위드메이트는 병원 동행이 필요한 수요자와 전문 동행인을 연결하는 병원 동행 플랫폼 ‘위드메이트’를 정식 출시했다.

/위드메이트

든 예약을 접수한 뒤 일률적으로 일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 스스로 예약을 검토하고 매칭되는 시스템이다.

지승배 위드메이트 대표는 “위드메이트는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확

실하고 주기적인 동행자 교육, 영업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자체와의 협력, 국립 및 사설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실습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만으로는 참된 ‘동행’을 위한 진정성과 책임감이 1% 정도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칭 시스템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위드메이트는 지난 2015년 설립돼 3500건이 넘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수행했다. 특히 위드메이트는 보건복지부와 고양시, 국립 암센터가 진행하는 암환자 안심 귀가 및 보호자 대행 서비스를 위한 ‘고양 해피 케어’ 컨소시엄에 소속돼 있고, 강남에 위치한 대형 암 요양병원과도 협업하며 암 치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로그·이벤트 통합관리로 외부 위협 사전감지

인스피언 ‘비즈인사이더 플러스’ 출시

빅데이터 기반 보안솔루션기업 인스피언은 방대한 IT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로그 및 이벤트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내외 법률·규제·인증 등을 준수할 수 있고, 침해 사고에 대한 증적제공 및 내외부 위협에 대한 사전감지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로그관리 솔루션 ‘비즈인사이더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수사업

연수생 290명 모집… 석사 월 250·박사 350만원 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8일부터 2020년도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에 참여할 석·박사 연수생 29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은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투자 10대 과제’의 중점 사업이다.

올해는 KIST, ETRI, KITECH 등

국내 최우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작년 140명(석사 130명, 박사 10명)보다 크게 증가한 290명(석사 250명, 박사 40명)의 청년 연구자를 선발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연수 희망자들은 연수사업 홈페이지

에서 참여 가능한 전국 각지 18개 정부 출연(연) 및 국공립(연)의 400여개 연구 개발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미취업자이며, 연수생들은 연수기간 동안 석사 월 250만원, 박사 월 350만원의 연수수당도 지급받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구서윤 기자 yuni2514@